

‘55조 공급’ 동남권 해양·조선·항공우주 산업에 날개 달다

〈2030년까지〉



①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② 부산 BNK부산은행 본점. BNK금융지주는 BNK부산은행 본점에 위치했다. ③ 지난 7월 3일 개최한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석원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부터)과 전재수 부산광역시 시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④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맨앞줄 오른쪽 일곱번째)과 정영두 김해시 시장(맨앞줄 오른쪽 여덟번째) 및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열린 ‘BNK경남은행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올해 지역과의 협력 확대 논의를 위해 김해시에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BNK경남은행·금융위원회

BNK금융

BNK 금융그룹

BNK금융이 지역과의 동반 성장에 중점을 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공급에 속도를 낸다. 해양·조선·항공우주 등 지역 내 전략산업에 자금을 투자하며, 취약계층에 자금을 공급한다.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지역 내 주요 금융기관이란 입지를 공고히하고,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BNK금융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총 55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한다. 건설업, 주택대출, 부동산임대업 등에 공급했던 자금을 제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재배치한다. 적극적인 지역 투자를 통해 동남권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한다.

55조원 가운데 50조원은 생산적 금융, 5조원은 포용적 금융에 배정했다. 특히 올해 20억원의 생산적 금융 목표액을 설정하고 조선·해양발전·항공우주 등 전략산업에 자금을 조기 공급한다.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및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정책 목표에 발맞춰 지역 해양·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포용적 금융은 청년, 일용직,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주안점을 둔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의 유망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단순한 여신 공급을 넘어 지역 산업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며 “기업금융, 글로벌금융을 포함한 종합 금융 서비스를 통해 지역 산업과

밀착된 진정한 의미의 생산적 금융을 구현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 지역 중소·중견기업 육성

BNK금융은 생산적 금융 목표를 ‘지역 경제의 발전이 곧 BNK의 성장’으로 제시했다. 동남권 지역에 거점을 둔 지역금융 그룹이라는 정체성을 공고히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도 확대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반도 지원한다.

먼저, BNK금융은 기업금융분야의 자금공급 체계를 ‘산업금융’ 체계로 재편했다.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임직원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해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종합 지원

올해 20억 생산적 금융 목표액 설정... 전략 산업에 공급
‘지역 경제 발전이 BNK의 성장’ 목표... 지자체 협력 확대
산업금융 체계 재편하고, ‘부·울·경 기업지원센터’ 신설
지역 청년에 ‘금리 선택형 대출’, 일용직·장기연체자 지원

한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부·울·경 기업지원센터’도 신설한다. 기업지원센터는 대출 심사 절차를 최소화해 자금 지원 속도를 개선했고, 경영컨설팅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계열사 간 연계도 강화한다. BNK금융 그룹은 올해 초 지주사에 지속가능금융본부와 생산적금융지원부를 신설했다.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자회사의 추진 과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금융지원과 정부 정책 연계를 강화해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금융 모델’을 목표로 한다.

BNK금융은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BNK금융은 지난 7월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BNK벤처투자가 공동 출자한 ‘생산적 금융 전략 펀드’를 출범했다. 전략펀드의 운용은 BNK벤처투자가 맡으며, 조선·해양·항공우주·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공급한다.

지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BNK금융은 지난 4월 일본 카라보시 금융그룹 및 베트남 탄롱그룹과 ‘스타트업 해외 사업 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들은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 해외 진출 솔루션 지원, 네트워킹 및 정보 교환 등 영역에서 협력한다. 참여 기

리 선택형 대출’을 공급한다. 해당 상품은 청년의 생애주기(정착기-성장기-안정기)에 따라 상환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환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수혜자 중심의 ‘포용 금융의 질적 전환’을 추진한다.

부울경 지역에 취입한 타지역 청년에는 외부 기관과 협력한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외부 지역 청년의 정착을 지원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대안신용평가를 도입한 대출 상품도 공급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약을 통해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심사해 활용하는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금리는 최저 연 3.9% 수준의 저금리로 설정해 금리 부담을 낮췄으며, 신용점수 하위 20%의 저신용자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도 최소화했다.

장기연체자에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BNK금융은 고령자와 장기소액연체자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및 신용정보 등록해제 조치를 실시했다. 취약계층 채무에는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또한 BNK금융과 금융공공기관이 합작해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에서는 금융상담, 채무조정, 고용지원까지의 전(全)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